

김병섭 살균제연구회 회장
강릉원주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교수



병 발생전 예방위주 방제 가장 중요

■ '감자박사 = 김병섭 교수'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감자는 대체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자는 어떤 작물입니까?

사실 저는 감자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자에 발생하는 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다보니 감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자는 옥수수, 벼,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중요한 작물이죠. 독일에서는 감자가 에너지 급원의 식량작물로서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 영양 급원인 완전식품이라고 하여 'Erdappel, 즉 '땅속의 사과(earth apple)'로 불립니다.

■ 감자 재배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병해충과 올바른 방제방법에 대해 말씀 해주시지요?

현재 14종의 바이러스병, 1종의 바이로이드병, 11종의 세균병, 17종의 균류에 의한 병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의한 병은 발생할 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최근에 철저한 증서체계 확립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균병과 균류에 의해 발생하는 병은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세균병 중 무름병과 더덩이병이 문제이고 균류병은 역병이 문제입니다. 세균병 방제는 무병증서 사용과 농용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류병인 감자역병은 1,60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을 일으킨 원인 균이죠. 지금도 이 병은 해에 따라 격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방제를 위한 다양한 살균제가 개발되어 있는데 방제를 위해서는 역시 예방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하고 이미 병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침투성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연구책임자로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인식전환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농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직업을 물으면 '농약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근무하기 전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신농약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신농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성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과정보다 많은 자원이 들어가죠. 기회 있을 때마다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말하지만,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